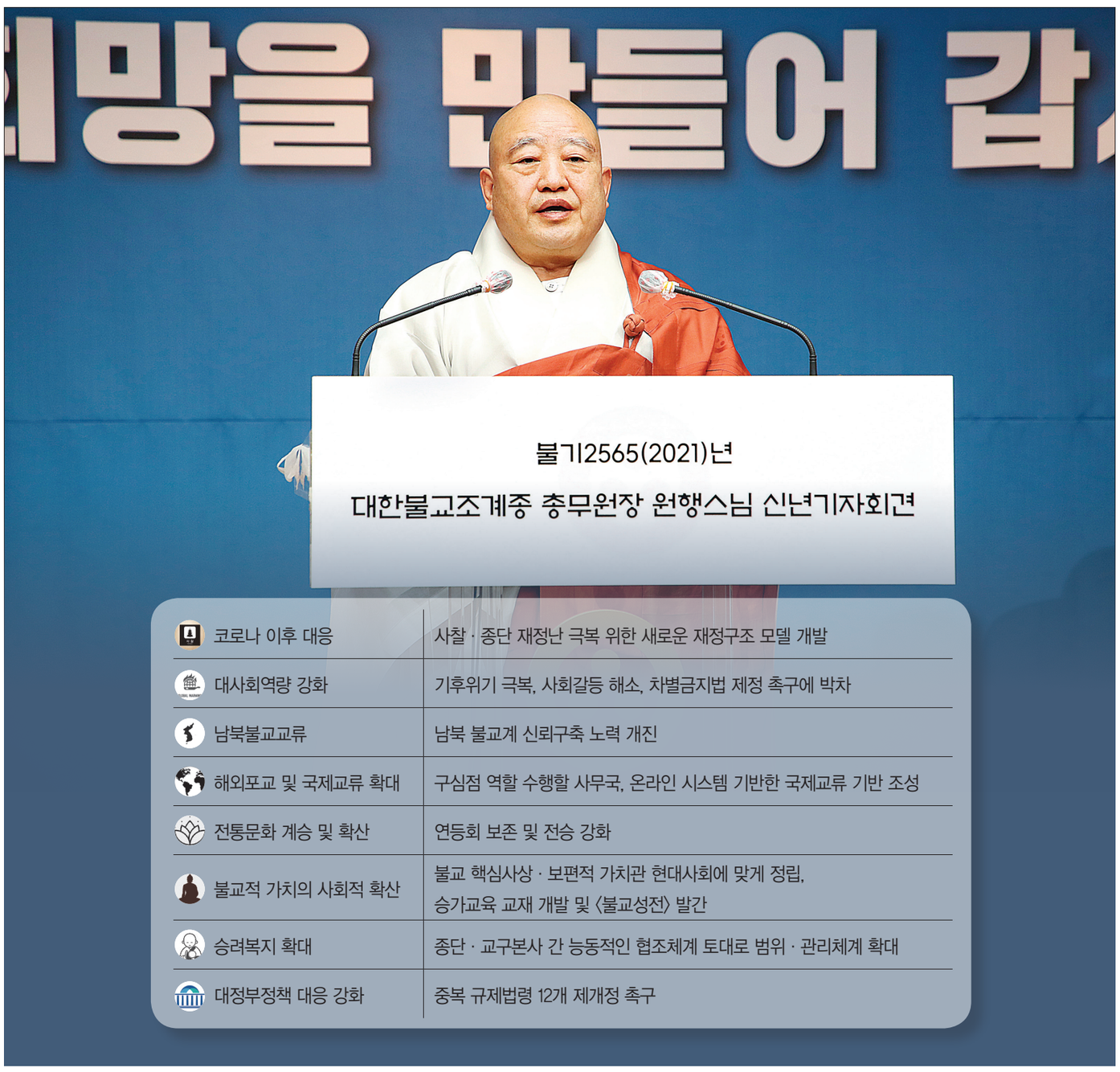
대사회활동 강화…불교 가치 확산 '주목'

키워드로 본 조계종 종무계획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7대 중점 종책과제로 △소통과 화합 △혁신 △승려복지 △교구중심 △문화창달 △교육과 포교 △사회를 꼽았다. 올해 중앙종무기관 들은 역시 이 같은 종책과제를 기반으로 각 부서별 주요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 한해 종무행정상 주요사업들을 키워드로 확인한다. 〈편집자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코로나 이후 대응

지난해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는 불교계, 특히 사찰과 종단 재정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재무부장 탄하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사찰과의 고통 분담을 위해 분담금을 감액하는 등 조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집행의 최대한 긴축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주에 의존하는 사찰 재정 및 분담금에 의존하는 종단의 재정구조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성급한 구조개선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종교 본연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는 재정구조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부를 중심으로 불교경제유통망 구축을 통한 불교경제생태계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문화로의 급격한 변화를 종책에 반영한 대목도 눈에 띈다. 조계종은 특히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연수교육과 관련, 지속성과 전법역량 활성화 증대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사전강의 시청을 통해 사미 · 사미니 수계교육을 축소 시행하고 승려연수의 비대면 교육 등을 시도한다. 또 다양한 형식의 불교영상콘텐츠를 활용해 주요종책과 불교문화 홍보에 나서는 한편,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등 유무형의 전통 불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대사회역량 강화

대사회적 역할의 대폭 확대는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특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적 흐름을 선제적으로 수용해 실천방안 모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계종은 파리기후협약 시행 원년을 맞아 기후위기의 시급성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코로나 사태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와 현대인의 무한 소비에 있음을 천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종단 및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연대해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세부지침 편성을 추진한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종교간 협의체를 통한 대국민 공동체 복원 메시지를 발표하고 종교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운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조계종은 올해 매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하고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대활동 및 대정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남북불교교류

올해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과의 새해서신 교류가 처음으로 단절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계종은 남북불교계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등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족유산보호 및 복원의 틀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전쟁 중 소실된 사찰 복원을 위한 공동조사 및 신계사 복원 기념 남북공동법회, 부처님오신날 공동발원문 발표와 법회 등 지금은 단절된 연례공동행사를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현상황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은 한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후 사찰 · 종단 재정난
새로운 재정 구조 모델 고민
매월 차별금지법 제정기도회
해외 포교 사무국 운영 추진
기후 위기 대응 실천 강화도

해외포교 및 국제교류 확대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해외사찰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변화도 예고했다. 특히 2009년 이후 해외사찰 수가 57%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사찰 현황조사를 통해 네트워크가 가능한 사찰을 파악하고 해외포교 정책 생산과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국 운영 준비 및 체계 구성에 나선다.

또 온라인 시스템에 토대를 둔 국제교류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영 · 중 · 일 외국인 대상 국제사이트를 9월 중 개편하고 해외불교 소식 교류를 위한 해외사찰 및 해외통신원 활용, 화상회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통문화 계승 및 확산

지난해 국가무형문화재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조계종은 이를 계기로 올해 연등회 보존 및 전승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개진한다. 위기 극복과 사회적 기원을 담아 연등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통등 세대전승을 위한 연등공방 확대 지원, 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 계층별 등감습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내외국인을 위한 홍보 및 전수교육시설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교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조계종은 올해 불교의 본질적인 가치를 현대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21세기 대전환의 시대에 따른 불교의 핵심사상과 보편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승가 뿐 아니라 일발불자 등 사부대중 공동체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불교 개론서 발간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불교의 핵심사상과 보편적 가치관을 담은 승가교육 교재도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연초 종단본 〈불교성전〉 발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불교성전〉은 이 시대 불자와 국민에게 필요한 부처님 가르침을 담아 불교의 이해와 신행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행문화 확산을 위해 2월경 5대 수행법 지침서도 발간한다. 5대 수행법 길라잡이와 불자생활의례 보급을 확산해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수행공동체로서의 종교적 위상을 고취하겠다는 복안이다.

승려복지 확대

지난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효과적으로 안착한 만큼, 올해에는 한발 더 나아가 종단과 교구본사의 능동적인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승려복지의 확대 및 보다 밀착적인 지원에 나선다. 승려복지 전산프로그램 가동으로 체계화된 승려복지 지원 및 관리, 승려복지제도 안내 및 승보공양 후원 홍보의 비대면 시스템 도입 및 강화를 통해 승려복지 활성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단 요양병원 · 요양원 건립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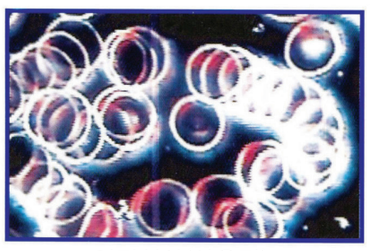
대정부정책 대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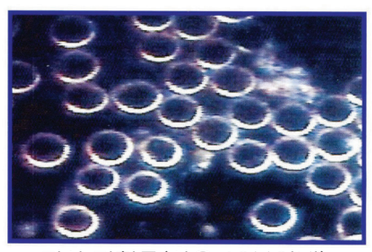
불교 관련 국가법령 제개정을 통해 사찰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불교 발전과 전통불교문화 보존전승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매장문화재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령을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 관련 부처와의 실무협의, 국회 입법발의 및 해당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심사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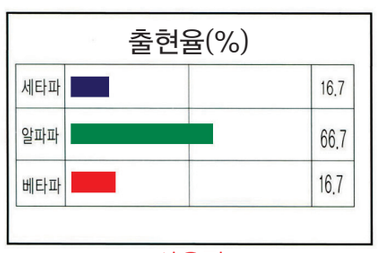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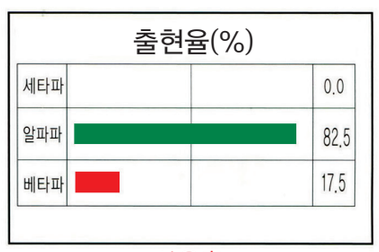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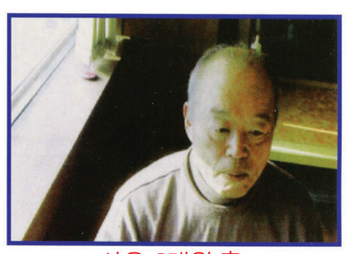


사용후

검버섯


사용전

제거 현상


사용 6개월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가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신년감사 특별세일 1월 18일 ~ 2월 10일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